

전기전자 (Overweight)

WWDC 2025 후기

Issue Comment

[전기전자] 고의영 2122-9179 ey.ko@imfnsec.com, [IT] 손우성 2122-9785 useong@imfnsec.com

1년 전과 오늘,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① WWDC 2024 당시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On device AI를 스마트폰 교체를 유도할 변화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스마트폰 내 AI 기능이 사용자 경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킬러 서비스로서는 부족. 즉, 새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 사람이라면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구매하겠지만, AI 기능이 곧 스마트폰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아닌 것. IDC에 따르면 AI 스마트폰 침투율은 '24년 19%에서 '25년 32%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는 Flat 수준에 그칠 전망

② Apple의 AI 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1년 전보다 더욱 낮아졌음. 지난해 WWDC 2024 직후에는 OpenAI와의 협업, '맥락을 이해하는' 개인화된 Siri 등을 통해 On device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었으나, 이후 주요 기능 출시가 지연되며 동사 AI 전략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었음. 특히 개인화된 Siri는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 없이 연기되었고, 그 사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격차를 벌리고 있음

③ 결과적으로 WWDC 2025 직전까지도 기대감은 제한적이었음. 행사 이전 언론을 통해 알려진 관전포인트는 아래와 같았음

-OS에 대한 UI 개편 가능성 (인터페이스 개선을 통한 사용자 경험 강화는 Apple 본연의 경쟁력이기도 함)

-AI 모델에 대한 개발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프레임워크 공개 가능성

-Google Gemini 통합 가능성 (다만 이는 Apple의 자체 AI 전략 부재를 상징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④ 실제로 WWDC2025 키노트는 낮아진 기대 수준이었음. 유려한 디자인의 'Liquid Glass'로 인터페이스가 크게 개선되었고, iPhone-iPad-Mac-Apple Watch 등 모든 하드웨어 플랫폼이 더 긴밀하게 통합되었으며, 개발자들이 직접 Apple Intelligence에 접근하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프레임워크' 등이 발표되었음. Apple Intelligence 기반의 다양한 AI 기능이 추가되었고, 사용자와 기기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었음, 이는 Apple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영역이기도 함. 다만,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는 고도화된 Siri에 대해서는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힘

전체적으로 Apple 특유의 생태계 강화 전략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나, 경쟁사들이 보여준 'AI 경연 대회'와 비교할 때, 투자자의 기대를 상회하는 수준의 내용은 부재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듯

낮아진 기대감... 무엇이 필요할까

① 낮아진 기대와 낮아진 주가: 애플의 주가는 YTD -17% 조정 받으며 지수를 크게 언더퍼폼 함. 1월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 3월 개인화된 Siri 무기한 지연 소식, 4월의 관세 우려를 거친 결과임. 특히 2월까지만 해도 Siri 업그레이드가 iOS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러한 투자 논리가 훼손된 점이 시발점이었음. 이미 기대감이 낮아진 만큼, WWDC 2025 키노트 이후에도 주가 변동은 크지 않았음 (1.2% 하락으로 마감)

② 주가의 촉매를 기대: 개인화된 Siri가 언제 다시 등장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길 기다림. 현재로서는 2026년으로 일정이 연기되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행 전략은 묘연함.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투자자 입장에서 회피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음.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시장의 관심이 점화될 수 있음. 그리고 AI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면, Apple의 가장 큰 자산인 수십 억 명의 유저 기반과 생태계 경쟁력도 다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관세 이슈에 대한 우려 완화도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음. 당사는 중국산 iPhone에 대한 펜타닐 관세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 신규 iPhone 가격이 +5% 인상되고, 수요는 3~4%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이슈가 해소되기만 해도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5-03-31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92.5%	6.8%	0.7%